

제53차 유럽통계기관장회의 및 제2차 OECD 통계위원회 참가 결과

I. 회의개요

1. 회의명 및 일시

- 제53차 유럽통계기관장회의
(The 53rd Plenary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)
- 2005.6.13(월) ~ 6.15(수) 오전
- 제2차 OECD 통계위원회
(The 2nd Session of Committee on Statistics, OECD)
- 2005.6.15(수) 오후 ~ 6.16(목)

2. 장소

- 스위스 제네바 유엔청사(Palais des Nations) 회의동 XXI

3. 주관

- UNECE(유럽통계기관장회의)
- OECD(OECD 통계위원회)

4. 참가자

- 통계청 안정임과장, 국제통계협력과 김부곤사무관
- 한국은행 김양우 OECD대표부 주재관
- * 외국 참가자
 - 일본, 중국, 영국, 호주, 뉴질랜드, 미국, 캐나다, 남아공, 브라질 및 유럽 각국 등 52개국
 - OECD, UNECE, Eurostat, ILO, IMF 등 18개 국제기구

5. 회의 주요의제

- 제53차 유럽통계기관장회의
 - 인터넷을 활용한 데이터리포팅(EDR : Electronic Data Reporting) 개선
 - 지속가능한 발전의 측정
 - 인구이동통계 등 주요 현안

- 비밀보호와 마이크로데이터 등
- 제2차 OECD통계위원회
 - 2006년도~2008년도 OECD 통계전략
 - OECD 핵심지표 포럼(2004년 이탈리아에서 제1차 개최) 후속조치
 - 비회원국의 OECD통계사업 참가
 - 기업/비시장 분야의 생산성 측정과 생산성 수준의 국제비교
 - 과학기술 및 신경제분야의 통계방법론 등

II. 아국 대표단 주요 활동

1. 제53차 유럽통계기관장회의(CES) 참가

- 우리나라는 유럽통계기관장회의의 업저버 자격이지만 동 회의의 의제인 데이터 리포팅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측정, 마이크로데이터 분야의 각 세션에서 아국의 경험을 소개하는 한편 동 분야의 중요 문제점(인터넷보안, 지속가능발전 정책에서 통계적 중립성, 연구자의 마이크로데이터 접근)에 대한 각국의 관심환기 발언

2. 제2차 OECD통계위원회 참가

- 우리나라는 통계위원회의 각종 현안에 관한 우리 입장을 밝히고, 통계위원회의 향후 사업에 대한 회원국의 협조 필요성을 강조

3. 타국 대표단과의 상호협력 증진 활동 수행

- 통계인프라가 유사한 유럽지역내 meeting과 차별화·특화할 수 있는 아시아통계포럼(가칭, 3자간 실무회의) 구축 필요성을 제안
 - 일본(Mr. Shuichi Watanabe 통계기준부장), 중국(Mr. Du Weiqun 국제협작사자문) 적극 동의
 - 일본은 특정주제를 대상으로 실무차원에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중국은 각국이 자체 가능성 검토 후 추진하자는 입장을 개진
 -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3자이상 확대도 무방하며 각자 내부 검토후 추진일정을 협의하자는 입장을 전달
- OECD Giovannini 통계국장은 OECD의 국제협력 인프라를 기술협력에 적극 활용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으며 한국인력이 가능하면 단기일지라도 OECD 통계국에 와서 근무하면 좋겠다고 권유

- 이에 대해 외교부 등 관련부처와의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답변
- 호주 및 뉴질랜드 청장과는 양국간 직원교환(호주) 등 협력 활성화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지역내 통계협력 증진에 관해 논의

Ⅲ. 회의 세부내용

□ 유럽통계기관장회의 주요 논의내용

1. 개회사

- 의장, UNECE 사무총장 등은 개회사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천년개발목표(MDGs) 관련 UNECE의 사업을 강조

2. 데이터리포팅 세미나

가. 인터넷의 사업체조사 활용(제1세션)

- 사업체조사에 인터넷 기법 활용시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
 - 비용/편익, 보안문제 및 응답자 반응 등
- 인터넷에 의한 사업체 조사에는 많은 자원이 소요되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품질 향상, 응답자부담 감소, 시의성 개선 및 효율 증가 등 효과는 비용을 능가
- 인터넷의 보안성과 이용편의성에 대한 응답자의 신뢰가 응답비율에 영향을 미침
- 토론중 제기된 사항은
 - 전자적 데이터 보고(EDR)를 조사표설계/처리과정에 통합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
 - 전자조사표는 서베이별 개발보다 공통 접근법이 바람직
 - 이용자 친화성 제고 및 응답부담 감소를 위한 제안
 - 응답중 중단 후 재개시 그 이후부터 작성할 수 있도록 조치
 - 사업체 정보시스템에서 데이터 직접 추출 등
 - 종이조사표 등 재래식 방법은 응답자의 보안 관련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필요
 - 중복 보고 방지를 위한 데이터 공통분류의 개발과 조정 중요

나. 인터넷의 인구 센서스/서베이 활용(제2세션)

- 특정 인구집단의 기대와 전자정부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인터넷 인구조사를 옵션으로 하는 국가가 증가 중
- 인터넷 인구조사로 응답자부담을 감소시키고 데이터 품질을 높일 수 있으며 학

생, 전문가집단, 장애인 등의 응답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음

- 단기적으로는 비용 절약적이지 않으나 장기적으로는 비용절약이 가능하며 인터넷 적용을 위한 세심한 계획과 시험이 필요
- 토론중 제기된 사항은
 - 현재로는 종이조사표가 표준 방법이고 인터넷조사는 추가옵션이지만 장래에는 역전 가능성
 - 인터넷 자료수집의 영향에 대한 자세한 측정 필요
 - 응답자비용 제고와 항목별 무응답비용 감소가 예상되지만 온라인조사표 실제 작성자(특히 가구조사)에 대한 영향도 평가해야 함
 - 인터넷조사에서 보안은 핵심요소이지만 위험의 완전제거는 불가능하므로 백업 방법도 준비 필요
 - 인터넷조사 업무 외주시 보안과 비밀보호에 영향이 없음을 대중에게 확신시킬 수 있어야 함
 - 목표집단에 대한 적절한 광고 등 인터넷조사 홍보도 핵심 요소
 - 조사표 제출을 추적할 수 있는 중앙통제장치 설치 필요

다. 인터넷리포팅의 인지·유용성 시험과 마케팅(제3세션)

- 유용성시험으로 이용자의 행태와 기대를 확인할 수 있으며 S/W 시험에서는 노출되지 않는 설계와 기능상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음
- 조사표, 도움기능의 설계가 응답자를 혼란시키지 않고 도울 수 있도록 세심한 시험 필요
- 토론중 제기된 사항은
 - 시험은 전자데이터 수집양식 개발에서 필수적인 요소
 - 사업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표는 사회 또는 인구조사표와 인터넷활용 경험, 용어 차이 등으로 인해 직접 비교할 수 없음
 - 종이조사에서 웹조사로 변화시 조사결과에 미치는 영향의 측정 필요
 - 전자조사의 개발, 유지 비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없으므로 비용, 편익 비율 분석은 아직 조급함
 - 응답자가 사용하는 S/W가 변화할 경우 시험은 반복되어야 함

라. 데이터리포팅 개선을 통한 응답자 부담 경감(제4세션)

- 데이터리포팅 개선을 통한 응답자부담의 3가지 방법
 - 수집 데이터 분량 축소, 행정자료 활용 및 전자적 보고를 위한 기술적 방법 개발
- 응답자와 기업집단과의 파트너십개발 중요
 - 통계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조사협력 유도

○ 토론중 제기된 사항은

- 국가마다 다른 정치적, 법적 체계가 응답부담 감소 노력에 영향을 미침
- 응답부담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대 통계청 인식을 통계청 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, 기업집단과의 관계 개선 등을 통해 향상 추진
- 응답부담 감소를 위해서는 응답부담 측정 후 분명한 전략, 목표 및 사업계획이 필요

마. 데이터리포팅 개선 세미나 결론

- 응답비율을 개선하고 응답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법적, 조직적 시스템 고려 필요
- 과제와 기회를 다음과 같이 요약
 - 대중의 신뢰 : 인터넷 보안, 비밀보호 및 각급 S/W 기술과의 조화
 - 데이터수집 분량 감축
 - 혼합모드의 설계와 효과
 - 기업 및 기술제공자들과의 파트너십
 - 대중홍보
 - EDR 비용분석 발전 필요성

바. 유럽통계기관장회의 조치

- EDR 관련 이슈를 검토하기 위한 실무반을 편성기로 하고 의장자문반이 연구범위(안)을 작성

3. 지속가능 발전(SD) 세미나

가. 기초연설

- 노르웨이 재경부차관의 기초연설 내용
 -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측정은 소수의 핵심 장기지표에 초점을 두어야 함
 - 단기정책을 모니터하기 위한 경제, 환경, 사회 세부데이터도 필요
 - 지속가능발전 지표(SDI) 개발을 위한 국제기구의 더 적극적 역할 필요
- 토론 중 제기된 사항은
 - 제안된 자본적 접근에서 인적(사회적) 자본에 대한 관심과 스톡 및 플로우 데이터 필요
 - SD는 전지구적 현상이므로 MDG 등 세계적 지표 필요
 - SD는 장기적 이슈이나 정치는 단기사항에 치중
 - 장기이슈에 대한 단기결정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제공이 통계 분야 과제

나. 국가통계의 역할(제1세션)

- SDI 분야에서 통계청과 국제기구의 역할 토론
 - 통계청은 SDI의 높은 정책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핵심사업으로 검토해야 함
 - 통계청은 지수개발 전문성, 축적 데이터 및 품질에 대한 높은 관심 등으로 SDI사업을 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음
 - 주요 과제는 환경, 경제 및 사회 등 SD의 다른 영역간 통합
- 토론중 제기된 사항은
 - SD 측정에서 국가통계의 역할은 강화되어야 함
 - 통합과 일관성을 위해 개념틀과 정보시스템은 매우 중요하며 SD는 소수의 지표로 측정할 수 없는 복잡한 이슈임
 - SD 이슈는 국가마다 다르므로 SD 지표의 개발은 더욱 어려움
 - 초점은 현재 SD의 측정이지만 예측과 모델링까지 나아가야 함
 -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있을 때만 현재 사용중인 지표를 SDI로 재활용해야 함
 - 통계전문가와 정책입안자 외 과학자도 SDI 개발작업에 참여해야 함
 - 개발도상국을 위주로 환경데이터가 부족
 - 개별국가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를 가진 최고 단계 프레임워크 필요
 - 정책입안자와 통계담당자간 역할 분담문제 토의
 - SD정책과 관련한 에너지정책의 중요성 강조
 - 측정할 수 없는 사항을 측정하려는 시도에 대한 우려 표시됨

다. 프레임워크와 분석도구(제2세션)

- 각국과 국제기구에서 개발중인 상이한 프레임워크와 지표세트를 검토하였으며 현재는 매우 다양한 프레임워크나 지표가 존재
 - 프레임워크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측정 노력도 다른 방향으로 진행
 - 주요 2대 접근법
 - SD의 상이한 측면(경제, 사회, 환경)을 활용
 - 현존하는 방법론적 프레임워크(경제환경통합계정, SEEA, 등)을 활용
- 토론중 제기된 사항은
 - 공통 개념 프레임워크에 대한 합의 필요성
 - 실질적 집행문제를 중심으로 기조이론과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데 통계청의 역할 중요
 - 국부, 인간개발, 경제개발 등 지속가능성의 목표에 관한 다양한 견해 표시됨
 - SDI를 국민계정시스템(SNA)으로 통합할 수 있으나 환경자산의 금전가치 평가문제가 있음

- 평가방법과 관련된 실질적 문제는 극복할 수 있으며 개념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많은 투자가 필요
-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수단은 이용자에게 통계결과를 홍보하는데 매우 유용

라. 사례연구(제3세션)

- o 프레임워크와 지표를 개발한 국가경험 검토
- o 프레임워크와 지표 개발에 성공하려면 자의성과 편파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계청, 정책분야 전문가, 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해야 함
- o 토론중 제기된 사항은
 - 현재 각국은 화폐 및 물질(physical) 지표를 혼용
 - 현단계에서는 거시지표에 집중 필요
 - 기본 추세를 파악하는데는 스톡과 플로우 모두 활용 가능
 - 개발된 지표세트로 정책사업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함
 - 언론과 다양한 이익집단의 요구 충족을 위해 이용자 친화적으로 제시되는 소수의 핵심지표세트 필요
 - 공중의 인식을 위한 적절한 홍보와 마케팅이 필수적
 - 공통 접근법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기법이 축적되었으므로 국가간 상호학습이 중요

마. 미래 요구와 권고(제4세션)

- o 지금까지 SD측정은 주로 선진국에서 진행되었으며 SD지표 개발을 위한 권고는
 - 개발과정에서 통계청의 역할 구체화
 -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한편 우선 표제(headline) 지표를 확인
 - 고립된 지표를 제외 및 홍보전략을 개발
- o 토론중 제기된 사항은
 - SD전략 모니터링에서 국가통계를 참여시키는 최적방안
 - SD현황 평가에 대한 국가통계의 참여 및 글로벌 파트너십이나 좋은 거버넌스 등 막연하게 정의된 정책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
 - 정책입안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측정방법 필요성
 - 총계지수는 변동이 심하여 오도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
 - 달성 가능하며 단기적으로 중간산출물이 확실한 장기 프로젝트의 확인
 - 지표와 계정프레임워크는 모두 필요하며 계정프레임워크는 핵심지표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간명해야 함
 - SD에는 많은 국가간(cross border) 효과가 있으므로 국제통계협력 및 국제기구의 역할 필요

바. 지속가능발전 세미나 결론

- 토론에서 제기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
 - SD측정은 중요하며 통계청은 센터역할을 함
 - SD개념에는 합의된 정의가 없으므로 국가별 지표선정 우선순위에는 다양한 차이가 있으므로 공통의 체계적 접근을 위한 통계청간 협력 필요
 - 개념프레임워크와 지표군(indicator school)은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유효
 - 통합 프레임워크 개발되기까지 당면수요 충족을 위해 지표세트에 대한 합의 도달이 필요
- 후속작업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있었으며 가능한 단계는
 - SD개념 프레임워크 포괄해야 할 영역에 대한 합의
 - 가능한 지표목록을 각 영역마다 개발
 - 전세계 지표가 될 수 있는 국가지표 세부세트 권고
 - 각 영역마다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확인하고 통계를 보완할 수 있는 과학적 측정수단 검토

사. 유럽통계기관장회의 조치

- SD 측정을 위한 후속사업 필요하며 의장단에서 향후 작업을 조직

4. ECE지역 통계사업의 통합소개와 조정

- 통계사업 통합소개(IP)는 30개 국제기구의 48개 통계분야를 범위로 하며 2002년 이후 DB형태로 인터넷에 수록하며 매년 이슈와 문제를 통계기관장회의에서 검토
- 금년도부터 다음 5개 사업을 사전에 회원국간 전자검토를 거친 후 현안과 이슈로 보고
 - 기술협력과 통계능력 구축
 - 동남유럽과 CIS국가에 대한 지원 등
 - 가계소득/지출, 인구복지, 빈곤, 소득불평등 통계
 - 공통 빈곤정의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강조됨
 - 향후 작업 어젠더를 위한 워크샵 또는 가구소비통계를 위한 시티그룹 결성 제의됨
 - 노동통계
 - 노동시간 측정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일반적 합의가 있었음
 - 노동력조사, 노동시간 기준 개정을 위한 ILO와 파리그룹의 작업, 노동시간 데이터 확보를 위한 사업체조사 활용 등이 검토됨
 - 노동력인구 이동 측정도 주요 이슈로 검토
 - 운송통계

- 운송통계연보(ABTS)의 시의성과 현실성 개선을 위한 제안을 참가국들이 지원
- UNECE 운송통계분류 개정안 채택
- 인구이동통계(독립 의제로 하여 상세히 검토)
 - 인구이동통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·조직적 프레임워크의 변화, 인터넷보고 등 기술발전, 새로운 관심(국가안보 등), 새로운 한계(정부조사에 대한 공중의 민감성) 등 검토
 - 용어와 정의의 통일 필요성 강조
 - 센서스나 서베이 등 자료수집을 위한 새로운 방법 소개
 - 인구이동통계와 경제통계와의 연계, 데이터수집상 어려움, 이주노동자 문제 등 검토
 - 향후 수년간 구체적인 일정과 사업내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운영그룹의 결성을 뷰로가 검토하고 금년 3월 이미 구성된 TF팀은 2010년 인구센서스를 위한 권고를 적시에 개발
- o 2006.2월 뷰로가 세부 검토할 사항 선정
 - 뷰로가 차후 세부 검토할 5개 분야 선정을 위해 금번 회의에서 참가국 투표를 실시
 - 품질 프레임워크와 통계시스템 성과 측정
 - 인구 및 인구이동 통계
 - 인적자원의 관리와 개발
 - 기술협력과 통계능력 구축
 - 세계화
 - 그 외 법률과 범죄, 소지역통계, 생존조건과 빈곤, MDG관련 지표, 제도적 프레임워크와 공식통계의 원칙/역할 등이 추천되었으며 뷰로에서 최종 선정

5. 다국적기업(MNE) 프로젝트 진행 보고

- o MNE활동 측정 실험결과 소개
 - 2003년 CES회의 세계화세미나 후속작업으로 프랑스, 이태리, 네덜란드와 영국의 협조를 받아 캐나다가 프로젝트 수행
 - 실험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각국 통계청의 정규 통계사업에서 수집된 자료와 상이함을 확인
- o 참가국들은 실험이 MNE 데이터와 관련된 몇몇 문제들을 규명하는데 가치있음을 확인

6. 비밀보호와 마이크로데이터 지침(안)

- 2003년 유럽통계기관장회의에서 결성된 태스크포스팀이 그 동안 연구 및 각국 의견 수렴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
 -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및 비밀보호 관련 핵심원칙과 모범사례 지침 개발
 - 마이크로데이터의 국제 이용에 대한 절차 등 추가작업 필요
 - 일정
 - 6월~8월중 각국, 국제기구 의견 수렴
 - 2005.10월 의장단 승인후 2006.6월 유럽통계기관장회의에서 최종 승인
- 마이크로데이터 공개범위, 연구자에 대한 배려 등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각국 의견이 제시됨

7. 차기회의 세미나 주제 선정

- 사전투표 결과 '인적자원과 훈련'을 내년도 주제로 선정하기로 함
- 기 선정된 '인구총조사'와 함께 차기 회의에서 2개 세미나 운영

8. 차기회의 일정 및 장소

- 일정 : 2006.6.12(월)~15(목)일 기간중 개최
- 장소 : 프랑스 파리

□ OECD통계위원회 회의 주요 논의내용

1. 2006~2008년 통계전략

- 의장인 캐나다 통계청장이 OECD 통계위원회의 핵심기능에 대하여 제안
 - 5가지 제안사항
 - EU와 비EU OECD회원국간 교량 역할
 - OECD 통계산출물의 품질 개선
 - 새로운 통계사업을 위한 OECD 타 정책위원회/사업국과의 적극적인 대화
 - 통계보급, 데이터보고 부담 등 OECD가 당면한 부문간 교차 통계이슈에 대한 자문
 - 통계국의 사업과 예산 프로그램 감독
 - 회원국들은 이에 동의하면서 제시한 사항 중 1, 3번 부각 필요성 제안
 - 이에 대해 의장은

- 주요 우선사항에 대해서는 시간, 예산 배분에서 우대하는게 좋겠고
- 특정 방법론을 단순화하고 명료하게 하기 위한 회원국의 적극적 제안을 희망한다는 의견 제시
- 핵심기능 등 토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재정리 추진
- 수정 전략은 11월말까지 OECD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므로 그 이전까지 서면 논평 희망
- 회원국들은 OECD가 보고한 2005년초까지의 성과에 대해 치하하면서도
- 네덜란드, 독일 등은 전략 우선순위 관련 일부 다른 견해 표명
 - 통계전략 중 마이크로데이터는 UNECE에서 이미 깊이있게 검토중이므로 OECD가 선도할 사항은 아니며, 국제기구에서 중복 어젠다 회피가 필요(영국 독일도 같은 의견)
- 호주, 프랑스, ECB(유럽중앙은행) 등은 통계전략의 2년단위 과제 외 중장기적 과제 수립도 중요함을 권고했으며 특히 미국은 OECD 통계위 핵심기능에 맞춰 전략 구체화 필요 주장
 - 이에 대해 통계국장은 뷰로에서 초안을 만들어 2006년도 회의검토를 제안하면서 사업중 우선순위를 긍정적(추진 대상), 부정적(제외 대상) 양면으로 지정해 주기를 희망

2. OECD 핵심지표 세계포럼

- 1차 포럼인 ‘통계, 지식 및 정책’의 개최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통계국장이 설명
 - 2004년도 포럼(11.10~13일, 이태리 팔레르모)은 전세계 정책분야, 학계, 미디어, 통계분야에서 43개국 540명이 참석
 - 핵심지표의 연구·이행 모니터링, 신규 부각분야의 지표설정 방법에 대한 연구, 대중에 대한 혁신적인 통계정보 접근법 개발,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한 경험지식 공유 등 후속조치를 위한 제안 설명
 - 향후 2~3년 주기로 포럼을 개최하며 소요자금 등은 회원국 또는 국제기구의 자발적 기여에 따름
- 터키가 2007년도 제2차 포럼의 유치의사를 표시하면서 개최를 위한 예산내역과 OECD-타국-국제기구의 지원예산액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요청

3. 비회원국의 OECD사업 참가

- 비회원국을 3개그룹으로 구분하여 OECD 통계사업에 참가시키자는 사무국의 제안 설명
 - 제1그룹 : 브라질, 중국, 러시아, 인도, 남아공 등은 정규회원예 준하여 초청

- 제2그룹 : 리투아니아 등 발틱국가, 인도네시아, 싱가포르, 칠레, 태국 등은 필요시 초청
- 제3그룹 : 현 단계에서는 사업에 초청 불가
- 비회원국에 대한 그룹 분류, 자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
 - EU가입국이면서 OECD 비회원국인 국가를 1그룹에 넣자는 제안
 - 일본은 비회원국에 대한 분류기준이 투명해야 함을 강조
 - 제1그룹 국가는 준회원국이나 업저버 자격 중 어느 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과 통계위원회의 통계사업에 대한 비회원국 참여를 다른 국, 위원회의 통계사업에 적용토록 권고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토의

4. 기업/비시장분야의 생산성 측정과 생산성 수준의 국제비교

- 정부산출물의 생산성을 평가하는 추계방식에 따라 년 GDP성장률 수치의 0.25%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Atkinson보고서(영국)를 사무국에서 소개하고 비시장 부문의 영향력이 상당함을 확인
 - 정부부문 뿐만 아니라 교육, 보건 등 비시장 분야의 성과추계 방식 등에 대한 세미나를 2006년 2/4분기중 개최하고 국제매뉴얼을 작성하도록 제안
- 사무국은 한국 등 13개 회원국이 국민계정 기준 노동시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바 여타 회원국도 동일한 기준을 사용토록 촉구
- 사무국은 또한 1인당 GDP의 국제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GNI(국민총소득), NDP(국내순생산) 등에 바탕을 둔 생산성 지표를 보완적으로 작성할 것을 권고
 - 이와 관련하여 내년중 자본스톡의 감가상각 측정과 관련하여 세미나 개최를 제안
- 의장은 노동생산성 산출에 있어 국민계정 기준 노동투입 지표 활용과 관련, 파리 그룹(노동과 보상 관련 시티그룹)에서 추가 개선사항을 검토하도록 권고
- 사무국은 세미나 개최 등을 위한 각국의 재정 지원에 감사를 표시하고 국제비교성의 중요도에 대해 강조

5. 품질평가

- OECD는 2002년부터 OECD통계 품질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2003년 이후 매년 6종씩 2년에 걸쳐 통계 품질검토를 시작
 - 2005~2006년 기간중에는 연금, 보건, 기업구조, 사회, 국제무역, 중앙정부 통계 등 검토
 - 시의성, 메타데이터에 대한 충실한 자료 수록, 포함범위 확대 등 각 통계에 대한 품질검토 사항을 보고서에 수록

- OECD사무국에 의한 단독 평가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평가작업에 대한 회원국들의 자발적 지원을 요청

6. 과학기술, 정보사회 및 신경제 분야의 방법론 및 통계발전

- 사무국에서 신경제 관련 사항을 설명
 - R&D 측정, 혁신, 특허, ICT(정보통신기술), 인적자원, 세계화 등 경제성장을 추동하는 복합요소에 대한 통계가 중요
 - OECD내 비교성 높은 신경제통계 프레임워크 해당분야
 - 급변하는 생산품과 서비스 상황에서 산출물의 측정
 -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아가는 경제에서 투자/자산의 정의
 - 경제/사회에서 기술의 채택과 이용의 측정
 - 정보/지식에 의해 유발된 개인과 기업의 행태변화 측정
- 스위스는 SNA 개정과 신경제 분야의 방법론을 일치시키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함을 지적
- 사무국은 개도국 외 선진국도 SNA 이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하고
 - 각 회원국 통계청장이 SNA의 새로운 개정방향에 대한 현실을 인식하고 기술적 측면에서 실무자와의 충분한 토의를 통한 방향제시 필요성을 강조

7. OECD 통계정보시스템과 데이터 수집·보급 신규정책

- 사무국에서 자료 및 메타데이터 수집, 처리, 저장, 공표, 검색 등 기능과 함께 통계정보시스템을 소개하고 자료/메타데이터 표준교환(SDMX)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의 필요성을 강조
- 사무국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SDMX의 새로운 접근방법인 XML 보급이 확산 중임을 알리고 이는 통계 효율성과 품질제고에서 중요함을 강조
 - 각 회원국에서도 향후 2~3년내 XML 사용을 통한 데이터 공유 확대를 예상
 - 캐나다, 호주 등은 통계보고 부담 경감 등에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향후 동사업의 지속 추진을 희망
 - 유럽중앙은행은 SDMX 중 핵심 패밀리데이터를 개발 중임을 소개하고 각 회원국의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
 - 현재 캐나다, 프랑스, 오스트리아에서 국민계정자료 수집분야에 시험 적용중